

광주·전남 2분기 '가계빚' 51조 역대 최대

광주 5537억·전남 5531억 늘어...증가율 전국 3번째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5922억 늘어난 25조7224억

올 2분기 광주·전남 가계대출이 1조원을 넘어 1년 반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잔액 역시 51조원을 넘어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은 광주 5537억원·전남 5531억원 등 1조1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4분기(1조3389억원) 이후 6분기(1년 반)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1분기 전남 가계대출은 3017억원 증가에 그치고 광주는 오히려 전분기보다 416억원 감소하는 등 총 2601억원의 증가액을 나타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가계대출 증가액은 1분기의 4.2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43%(3329억원) 증가한 수치다.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잔액 역시 지난 1분기 50조2121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돌파한 뒤 2분기에는 51조2279억원으로 또 역대 최대 기록을 바꿨다.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은 각각 6.9%로, 서울(9.4%)과 세종(7.1%)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5.7%)도 크게 웃돌았다. 지역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올랐다. 올 2분기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광주 3587억원·전남 2335억원 등 592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4376억원)보다 35.3%(1546억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지난 1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광주는 174억원 줄고, 전남은 795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광주 16조4822억원과 전남 9조2402억원 등 25조7224억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올해 월별로 가계대출 금액은 지난 4~5



월 크게 늘었지만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 영향으로 6월에는 전달보다 절반 가까이 가계대출이 줄었다. 지역 가계대출은 1월(-172억)과 2월(-816억원) 연이어 마이너스를 나타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3월(3589억원), 4월(4179억원), 5월(4349억원)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6월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광주지역은 1035억원 줄고 전남은 130억원 증가에 그쳤다. 광주·전남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1월(1271억원), 2월(-3011억원), 3월(2361억원), 4월(2859억원), 5월(3968억

원) 등으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6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주춤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에 비해서도 축소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3000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2분기(4~6월)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이고, 2분기 증가액(23조9000억원)은 2017년 4분기(28조7000억원) 이후 2년 반만에 가장 많았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2분기에만 14조8000억원 늘어 잔액이 873조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1분기(15조300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2분기(8조4000억원)의 거의 두 배 규모다. /백희준 기자 bhj@

중기 수해 복구 자금 대출

한은 광주전남본부 24일~10월 8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8일까지 홍수 피해복구를 위한 운전·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추석자금 조달 원활화와 홍수 피해복구를 위해 지난해 자금규모의 2배인 300억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이다. 부동산 관련업, 유흥업 등 대출제한업종에 속한 업체,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 등 전문업종은 제외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10억원이다. 한은 측은 지원기간 중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시설자금은 3년) 대출실적의 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를 저리로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기존 명절 자금은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올해는 홍수피해 업종을 위해 시설자금 대출까지 포함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홍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산 아열대과일 '오매향' 첫 수출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9일 영광 망고야농장에서 '오매향' 브랜드 첫 흥망고 수출을 기념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영광 흥망고 180kg 홍콩행... 내달 청망고 가세

전남 아열대과일 '오매향' 브랜드가 첫 수출길에 올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영광군 연산면 망고야농장에서 생산된 '오매향' 흥망고 수출을 위한 상자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매향' 흥망고는 홍콩으로 180kg 수출된 뒤 오는 9월 본격 출하하는 청망고와 함께 해외시장을 공략하게 된다. 풍부한 당도와 향으로 '애플망고'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흥망고는 최근 광주신세계,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수입산 과일로 대표되는 망고를 전남지역에서 수출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국내외 소비자에게 아열대농산물의 중심지로서 전남의 이미지를 선점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74.22 (-86.32) ↑ 금리(국고채 3년) 0.813 (+0.008)
- ↓ 코스닥 791.14 (-27.60) ↑ 환율(USD) 1186.90 (+5.70)

광주은행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

일시: 2020.08.19.(수)15:00~ 장소: 광주보건대학교 임마누엘관 1층 상용홀



광주은행-보건대 주거래은행 협약 송종욱(오른쪽) 광주은행장과 정명진 광주보건대학교 총장은 지난 19일 광주보건대에서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맺었다. <광주은행 제공>

한전KDN 9개 혁신과제 선정

'시민참여혁신단 회의' 도

한전KDN은 20일 나주 본사에서 '혁신위원회'를 열고 9개 혁신과제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성철 한전KDN 사장 주재로 열린 혁신위원회는 '소통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ICT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혁신목표로 삼았다. 이날 선정된 9개 과제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혁신위는 과제실행을 위한 35개 세부 실행과제도 세웠다. 대표 과제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자가진단 헬스케어 및 통합안전 모바일 시스템 개발 ▲변전소 및 변전설비 운영 관리 디지털 트윈모델 구축 ▲증강현실(AR) 기반 전력설비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기술 기반 고장예지시스템 개발 및 비대면 디지털 신사업 등이다. 한전KDN과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PS 등 전력그룹사 4개사가 참여하는 '나주 혁신도시 시민참여혁신단 회의'도 같은 날 열렸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각사 혁신업무담당자가 참석했다. 박성철 사장은 "혁신을 위해 대내외 소통을 확대하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혁신적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ICT(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업 경영정보 3년 내 갱신 안하면 말소

앞으로 농·어업인이 정부 용자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경영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말소돼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농·어업인의 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제대로 갱신되지 않은 정보는 말소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관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청 등 농·어업인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등록 또는 변경 후 3년이 지난 농·어업인의 경영정보를 말소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에서는 광주 2만 6625호·전남 22만 5685호 등 25만 2310호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